



##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2015.6.15 | 이정아\_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 | tempjunga@gmail.com

한국인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소득이 매우 낮아지는 중에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생존비의 한계에 다다랐으면서도 소득보다는 적게 소비하는 까닭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충동 때문이라고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애 내내 직면하는 경제적 불안,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유일까? 노년기에도 생존의 한계까지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덜 쓰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소비행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sup>1)</sup>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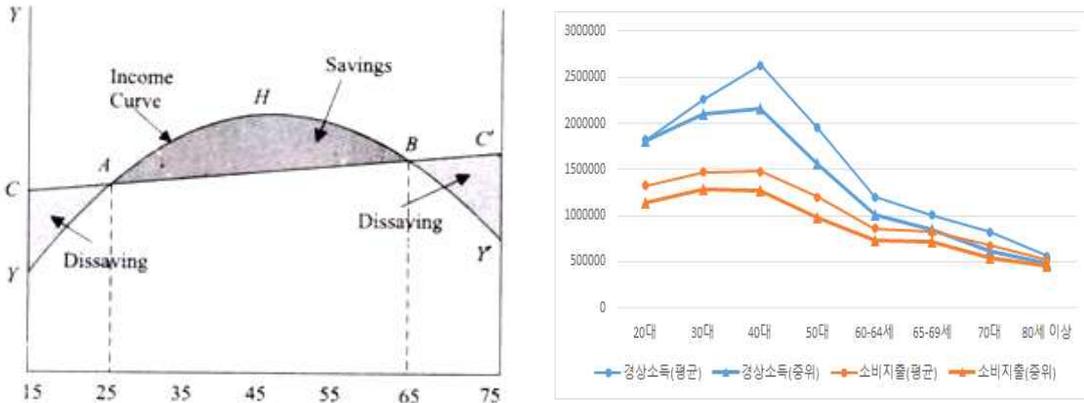
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나타낸 그림 1 오른쪽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을 보면 생애주기 가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연령대별 소비 곡선이 소득 곡선에 비해 완만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뒤집힌 종 모양(U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대 이상 전체 1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평균 소비지

1) 2015년 3월 새사연 발간 보고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참조.



출 비중은 약 68%로, 20대 72.82%로부터 낮아지다가 40대 56.18%로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92.15%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세대별로 소비성향이 다른 탓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소비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세대의 소비욕구가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서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림1. 생애주기 가설(왼쪽)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소비(원, 오른쪽)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표1. 가구·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원)

	1인가구				2인(유배우자)가구			
	구성(%)	경상소득	소비지출	지출비(%)	구성(%)	경상소득	소비지출	지출비(%)
20대	(6.0)	1,818,430	1,324,263	72.82	(1.4)	4,214,487	2,208,712	52.41
30대	(11.4)	2,261,658	1,474,701	65.20	(9.3)	4,336,496	2,413,384	55.65
40대	(10.3)	2,634,112	1,479,791	56.18	(6.4)	4,460,429	2,462,062	55.20
50대	(18.6)	1,949,377	1,203,408	61.73	(24.0)	4,464,176	2,418,018	54.16
60대	(19.0)	1,099,752	840,077	76.39	(30.1)	2,597,252	1,640,448	63.16
60-64세	(9.0)	1,203,687	858,418	71.32	(14.3)	2,826,488	1,833,184	64.86
65-69세	(10.1)	1,007,285	823,759	81.78	(15.9)	2,391,361	1,467,339	61.36
70대	(26.2)	825,427	677,542	82.08	(23.4)	1,622,451	1,152,425	71.03
80세 이상	(8.5)	557,457	513,707	92.15	(5.4)	1,121,771	912,992	81.38
20세 이상 전체 중위	(100)	1,046,444	825,845	78.92	(100)	2,500,000	1,535,035	90.83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지출비는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임.



표 1에서는 1인가구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생애주기 가설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의 연령대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앞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도 순지출이 아닌 순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특히 20대 2인가구의 저축 경향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다.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60대에 들어서면 소비지출을 줄이지만 훨씬 적은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60대, 70대, 80대로 들어설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43.6%, 24.9%, 32.5%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은 30.2%, 19.4%, 24.2% 감소한다. 2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은 41.8%, 37.5%, 30.9%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32.2%, 29.8%, 20.8%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당신이라면 소득이 꾸준히 감소할 때 어떤 소비항목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표2.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소비지출(원)	1,324,263	1,474,701	1,479,791	1,203,408	840,077	677,542	513,707
식료품 및 음료	7.08	9.19	10.45	14.68	22.61	24.84	22.23
음식·숙박	16.69	18.13	16.89	14.15	8.89	5.61	5.60
식료품비*(원)	23.26 (308,088)	26.75 (394,447)	26.64 (394,193)	28.54 (343,424)	31.41 (263,863)	30.39 (205,887)	27.82 (142,917)
주거 및 수도광열	21.06	17.16	17.79	18.04	20.58	24.73	34.85
식주거비**(원)	44.32 (586,913)	43.91 (647,570)	44.43 (657,511)	46.58 (560,574)	51.99 (436,733)	55.11 (373,414)	62.67 (321,962)
보건	3.68	5.04	5.45	7.60	11.18	14.75	14.97
식주거보건비***(원)	48.00 (635,706)	48.95 (721,837)	49.88 (738,182)	54.18 (652,050)	63.17 (530,673)	69.86 (473,328)	77.65 (398,871)
주류 및 담배	1.16	1.49	1.84	2.22	1.56	0.92	0.53
의류 및 신발	8.88	7.32	6.37	5.63	5.69	3.96	2.3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84	3.55	2.46	3.96	4.35	4.85	4.67
교통	11.97	15.34	13.63	11.15	7.63	4.26	2.93
통신	4.88	6.45	6.21	4.84	3.82	2.78	2.48
오락문화	7.72	6.16	7.02	5.28	4.65	4.03	3.30
교육	3.15	1.32	4.18	1.79	0.12	0.30	0.02
기타상품 및 서비스	9.89	8.84	7.70	10.66	8.94	8.97	6.12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식료품비' 는 '식료품 및 음료' 과 '음식·숙박' 항목 중 '식사비' 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비' 는 '식료품비' 와 '주거 및 수도광열비' 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보건비' 는 '식주거비' 와 '보건비' 를 합산하여 평균함.



표 2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총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으로도, 비중으로도 60대 이후 커진다.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줄이므로 비중은 커진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은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든다. 이때 60대 이후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식료품 소비는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외식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계산하면 식료품비 역시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비중은 커지는 항목이다. 이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지출을 늘리는 소비 항목은 보건의 유일하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소비지출 내용의 경향을 함축하여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식주거비 및 식주거보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단지 먹고, 거주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지출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주거보건비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전체 소비지출 중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표 1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 이후 76%, 82%, 92%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존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소비행태를 단순히 선호나 성향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구형태를 1인가구, 가구주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 기타 2인가구, 배우자가 있는 3인 이상 가구, 배우자는 없지만 가구주 외 취업자인 구성원이 있는 3인가구, 기타 3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가구주의 연령을 60세 미만과 60세 이상으로 나누어 앞에서 살펴본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및 식주거보건비 비중 등을 표 3에 나타냈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배우자가 있는 3인 이상 가구인 반면, 60세 이상은 단독가구의 비중이 41%, 배우자가 있는 2인가구가 35%로 이 연령대 가구유형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즉 노인가구의 특성은 상당 부분 이 가구유형에 의해 대표된다.

어떤 가구유형이든지 가구주가 60세 이상일 때 경상소득은 낮고 식주거보건비도 적지만 그 비중은 높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인가구와 유배우자 2인가구, 기타 3인 이상 가구의 식주거보건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에 따른 격차가 현저하다. 표의 마지막 행에는 60세 미만과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 차이를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상소득에 대한 비율로 보인 것인데, 세 가구 유형의 격차가 모두 100% 이상이다. 생애주기 가설의 예측과는 달리 연령대를 불문하고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은 삼가는 순저축 경향이 높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에 들어 심각한 소득저하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절대적 생존비 수준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3. 가구형태별 소득, 소비지출 및 항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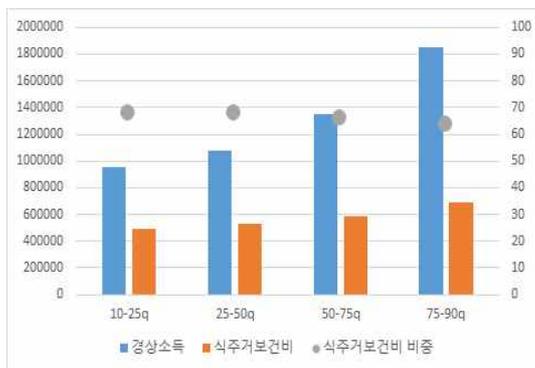
		1인	2인 (유배우자)	2인(기타)	3인이상 (유배우자)	3인이상 (가구주외 유취업자)	3인이상 (기타)
60세 미만	가구형태 비중(%)	14.54	10.14	7.52	59.89	3.07	4.83
	경상소득	2,161,597	4,426,041	3,051,624	4,898,433	4,218,440	3,532,800
	소비지출*	1,347,125 (62.32)	2,416,591 (54.60)	1,820,491 (59.66)	3,065,616 (62.58)	2,365,167 (56.07)	2,394,927 (67.79)
	식료품비	362,690	629,640	499,171	783,631	690,657	604,375
	식주거비	606,908	888,288	745,791	1,063,469	974,731	869,419
	식주거 보건비*	686,247 (31.75)	1,050,278 (23.73)	864,819 (28.34)	1,239,193 (25.30)	1,128,326 (26.75)	1,020,216 (28.88)
60세 이상	가구형태 비중(%)	41.07	35.33	5.09	17.21	0.81	0.49
	경상소득	880,039	2,075,181	2,019,766	4,020,463	3,589,934	1,604,036
	소비지출*	709,094 (80.58)	1,380,109 (66.51)	1,258,842 (62.33)	2,195,449 (54.61)	2,019,110 (56.24)	1,392,488 (86.81)
	식료품비	216,422	436,741	360,744	664,098	630,870	388,904
	식주거비	387,671	655,614	619,571	919,822	818,283	647,934
	식주거 보건비*	481,816 (54.75)	832,785 (40.13)	743,229 (36.80)	1,099,998 (27.36)	987,984 (27.52)	828,468 (51.65)
경상소득 격차(%)	145.63	113.28	51.09	21.84	17.51	120.24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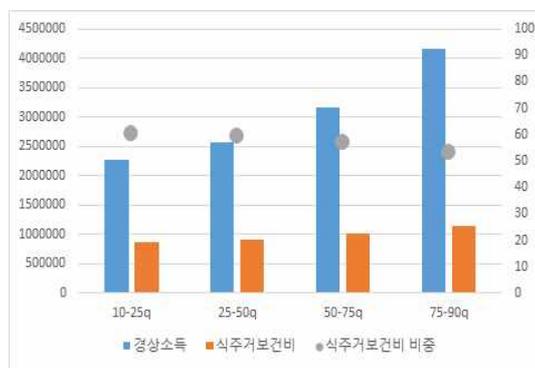
\* 괄호 안은 각각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식주거보건비 비중.

그림2.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 소득분위별 식주거보건비

1인가구



2인(유배우자)가구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왼쪽 축 경상소득과 식주거보건비(원), 오른쪽 축은 소비지출 대비 식주거보건비 비중(%).



그림 2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 구간별 평균 경상소득과 식주거보건비 및 소비지출 대비 식주거보건의 비중을 함께 나타냈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 90분위의 경상소득도 6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주목할 점은 높은 소득분위 구간일수록 식주거보건비도 높아지지만, 소비지출 대비 식주거보건비 비중은 줄어들기는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순저축의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낮은 소득분위에서도 드러난다. 높은 연령대에서, 낮은 소득분위에서 식주거보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결국 소비성향이 아닌 생존비의 한계와 소득수준이 가깝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듯이 평생의 소득을 예측해서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를 배분할 만큼 ‘합리적’ 이지 않은 것 같다. 경제학은 소비가 효용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국인들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고 소득이 매우 낮아지는 중에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생존비의 한계에 다다랐으면서도 소득보다는 적게 소비하는 까닭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충동 때문이라고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애 내내 직면하는 경제적 불안,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유일까? 노년기에도 생존의 한계까지 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털 쓰는 혹은 그래야만 하는 소비행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적 불안을 털어주는 장치를 ‘사회안전망’ 이라고 한다. ▶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15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① : 인구기초통계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